

하나님 앞에서 진료하는 병원

기도하는 병원

예배하는 병원

선교하는 병원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이야기



박진석성형외과 박진석 원장의 하나님 이야기

성형외과의사 박진석의 신앙간증

성형외과의사가 환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이야기

차례

서론 _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이야기 · 8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 · 18

(나를 깨끗케 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 22

(의료선교의 시작)

가슴성형전문가로 세우시는 하나님 1 · 32

(성형외과학술대회에서 생긴 일)

가슴성형전문가로 세우시는 하나님 2 · 36

(1회 아산심포지엄 생방송시연에서 생긴 일)

나의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 41

(박진석의 사랑이야기)

박진석성형외과를 만드시는 하나님 1 · 45

(직원문신 이야기)

박진석성형외과를 만드시는 하나님 2 · 49

(목디스크 수술이야기)

다시 선교현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 56

(카라칼팍공화국)

하나님 이야기 맺음말 · 63

성형외과의사가 환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이야기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신 참 따스한 마음의 환자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만난 부
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글을 전하려고 적다보
니 저희 병원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 이 곳에 조금씩 저의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서론]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

저는 초등 4년 때 시골에서 올라와 이모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까지 성당엘 다녔어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안가면 죄짓는 느낌이었고 갔다 올 때도 때로는 평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때로는 피곤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오면서 따로 자취를 하였고 이때부터는 성당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군의원 시절 저처럼 하나님을 어렵פות이 알고만 지내던 집사람이 동네 아줌마와 기도원을 다녀와서 저희는 말다툼을 했지요.

사이비 기도원 다니다 망신당하지 말고 이답에 들어서 나와 성당이나 다니자구요.

죽기 전까지는 내 맘대로 살다가 혹시 모르니까 죽기 직전에 성당을 나가보는 것이 좋겠다구요.

참고로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더구나 성형외과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못 먹

고 못 자고 일 더미에 깔려서 씻을 시간과 마음에 여유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매일 뻘뻘 울어대는 아기 환자들, 전신 화상으로 인해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가운데 있던 환자들...

저는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순간적으로나마 이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더 주게 되는 치료 행위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빈도는 점점 줄어들고 저의 일, 저의 임무로 해치우는, 밀린 일 중의 하나로 여기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저의 인성은 점점 차가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철저한 자기 책임 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 펑크 나는 경우 항상 흑독한 댕가를 치루는 수련과정은 나를 변화시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일은 잘 못 믿는 의심 많은 완벽주의 성격체가 되어있었습니다. 또 의사는 이래야 한다는 자기위안도 있었구요.

이럴 즈음 나의 신앙관 :

신은 인간의 창조물이라 생각했습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자연(해, 달, 호랑이 등등)을 섬기던 원시종교에서 출발하여 조금씩 발전해나가면서 죽음으로 인해 영원히 헤어짐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다음 세상에 대한 믿음은 현실에서의 억울한 자를 위로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다음 세상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었다는... 따라서 천국도 지옥도 옥황상제도 하나님도 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종교는 세상을 법이나 도덕개념보다 사회가 서로 아끼도록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내 믿음만 옳다는 독선만 배제한다면 현대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설교를 하는 종교인들도 먹고 살아야 하므로 돈 내라는 그 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아주 조금씩 헌금하는 정도도 괜찮겠다...

이런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이는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표현이 이해가 쉽겠지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이 실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믿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이야기

세인성형외과에서 IMF가 시작되던 1998년에 갑자기 환자가 줄어서 세 명이 근무하는 병원에 한사람만 있어도 될 정도로 일이 없던 상황에 두 사람이 남기로 하고 한사람은 미국에 1년간 공부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순번으로 따지면 꼴찌였지만 두 분은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1달러 환율이 2000원 가까이 오르내리던 불안한 상황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살고 있던 보스턴 근처로 가고 싶은 생각에 많은 대학병원에 1년간 교환교수 비자를 줄 수 있는 지 여러 군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동물실험을 하는 조건으로는 하버드 대학병원에서도 1년 비자를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개원한 성형외과의사는 여러 군데 수술을 보러다녀야 하는데 토끼 갖고 실험만 한다는 것은 저에게 족쇄만 된다는 생각에 실험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는 받아들이지 않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MD Anderson 암센터에 병리학과장으로 계시던 노재윤박사님과 연락이 닿았고 휴스턴의 Baylor 대학병원의 성형외과에 전화한 통화로 1년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노재윤 박사님의 조건은 교회 나오라는 것이었구요. 휴스턴에 가 있는

1년간 여기 저기 가슴성형을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찾아다니며 돈과 시간을 많이 써가며 좋은 경험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 휴스턴으로 부르셨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휴스턴의 서울침례교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믿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불신자나 초신자는 극빈대우를 받는 상황이었구요.

제가 생각했던 교회는 나이 많은 장로나 집사가 호령하고 젊은 초신자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이었는데 그 곳 상황은 관록 있으신 분들이 제일 굿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섬기는 기쁨이 있어보여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곳에서 목장이라는 소그룹 가정모임을 가졌는데 그 곳 역시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저희 가정을 위한 많은 배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국서 20년 이상 사시면서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나 회계사로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의 가정이 저희 가족이 낯선 미국에 자리 잡는데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감사함과 더불어 그 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37세의 젊은 가장과 35세의 예쁜 아내, 장난꾸러기 두 아들(초등1년, 4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갈 때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가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는데 아이들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투자해서 온 미국 생활에서 뭔가 아이들이 얻어가야 한다는 아빠의 강박관념과는 달리 아이들은 게임보이나 포켓몬 카드에 열중하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당시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제 기억 속의 아이들 보다는 훨씬 어린 아이가 사진속에 있는 것을 보고

“진석아 너 뭐한거니?” 하며

당시 아이들에게 요구했던 어른스러운 생각과 절제가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1999년 7월(미국생활 2개월,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없던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학회를 참관하고 난 후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렌터카로 라스베가스에서 후버댐을 경유하여 그랜드캐년을 통과하고 유타를 돌아서 다시 라스베가스로 돌아오는 드라이브코스를 정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곳저곳 마구 돌아다니는 여행은 좋아하지 않으며 한 곳에서 푹 쉬는 휴가를 좋아하는 편이고 제 아내는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상태.

아이들은 게임보이 외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번 여행 코스는 나중에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 중 어느 누구를 위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미국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었고 아이들은 아빠가 가자니까 따라나선 것이고 아내는 둘 사이를 조율하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자거나 게임보이를 하거나 서로 게임보이를 하겠다고 싸우거나 하며 바깥 경치를 좀 보라는 소리를 할 때만 창밖을 힐끔 보고 다시 원위치.

아내와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강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남쪽 진입로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4-5시 정도였는데 숙소를 알아보고 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석양의 그랜드캐년도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서 자더라도 미리 서쪽(West limb)이라도 먼저 봐야지 하는 생각에 계속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쪽 그랜드 캐년을 봤을 때 풍광도 별로였고 사진에서 보았던 장관이

별로 눈에 띄지 않으며 고소공포증이 있던 아내도, 경치에 관심이 전혀 없는 아이들에게도,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개그맨이 웃기는 소리를 했는데 조용한 관중들 앞에서의 기분이 이럴까?

저는 풍광이 사진에서 본 듯한 경치를 찾기 위해 동쪽(East limb)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사진에서 많이 보던 장관을 찾았는데 제 소감은 사진과 별 다를 게 없네 하는 정도였고 아내는 난간 근처로 오지도 못하는 상태.

아이들은 아빠 눈치만 보고 경치는 관심이 없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좀 더 큰 자극을 위해 난간을 넘어가서 아이들을 부르자 아이들도 울고 아내도 빨리 나오라고 아우성인 상황.

내일 이곳을 다시 찾아오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되리라는 생각에 나머지 부분도 마저 대충 보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웬만한 곳은 스킵하면서 동쪽 그랜드캐년의 거의 끝까지 갔습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동쪽 끝 그랜드캐년에 있는 식당도 끝났고 주유소도 사람은 있는데 기름을 넣어주지 않는 상황.

남쪽 입구까지는 100km이상을 되돌아가야하고 지도상으로 100km정도 가면 Cameron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 상황.

렌터카의 계기판은 남은 기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120km.

배고프고 피곤한 가족들의 원성이 한계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되돌아 갔을 때를 생각해봤습니다. 7월 성수기에 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계속 가던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불빛이 전혀 없는 칠흑같은 어두움을 뚫고 곰과 늑대 같은 야생동물을 조심하

라는 팻말을 지나치며 다들 볼쾌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기름을 절약하느라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예상과는 달리 지도상 10km도 채 오지 않았는데 남은 기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100km.

10km쯤 더 갔을까? 지도상의 거리와 남은 기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같아 지고 이런 식으로 기름이 줄어들면 중간에 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불안해하며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여행할 때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지 계획성 없이 여행하는 것은 참 무모하다. 우리 아빠는 여행할 때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다.”

울고 있는 아내에게 저 역시 언성을 높였고 뒤에 있던 아이들도 덩달아 두려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아내가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가장이 가족을 잘 못 인도해 어려움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희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믿음이 없던 아내의 절박한 기도가 끝나자 채 1분도 안되어서 남은 기름으로 갈 수 있는 예상거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차가 전진 중인데 예상거리는 점점 더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언제 올었냐는 듯 의기양양해 지고 저도 아이들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 차가 계속 오르막을 오르면서 에어컨도 켜져있는 상태에서 기름소모량이 많다가 내리막을 만나고 에어컨을 끄고 경제속도로 차를 움직여서 예상거리가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는 되었지만 이런 우연이 기도 후에 바로 일어난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본 아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신기하다 하면서 같이 안도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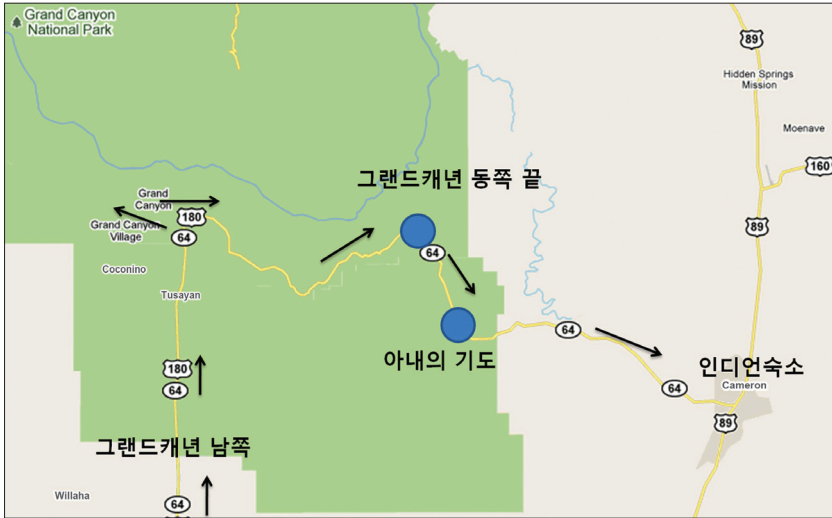
분위기는 급반전되었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남은 기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기도할 당시와 거의 같은 80km정도였습니다.

기름을 넣고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위해 육포와 간식거리를 사고 주유소에서 가까운 숙소를 물었습니다. 가던 방향으로 1마일 정도 가면 인디언 포스트(옛날 역마차 정거장)이 있다고 하여 찾아갔습니다.

카메론의 인디언 기념품을 파는 가게와 붙어있는 통나무 모텔을 다른 곳의 반값 정도에 묵었습니다.

저녁 11시반 정도 되었는데 식사를 못했다며 배가 고프는데 근처에 먹을 곳이 없냐고 했더니 상점 안쪽으로 식당이 있는데 12시까지니까 들어가 보라 하여 때늦은 식사도 맛나게 하였습니다.

모텔은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깨끗한 모텔로 우리에게겐 더할나위 없는 안식처였습니다. 정말 긴긴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며 씻지도 않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 5시반 정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제는 정신없이 잤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있는거야 하며 방문을 열고 나온 순간
 ‘아~~~’
 신음을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묵었던 방문은 서향이었고 방에서 나온 난간은 이층 높이인데 몇m 앞
 에 절벽이 있어서 내 눈에는 바로 절벽이 보였습니다.

마치 타이타닉 뱃머리에 선 느낌이었습니다.

더구나 문 앞에서 바라본 광경은 그랜드 캐년 협곡의 시작부위였으며 좌우로
 도열한 듯한 병풍과 같은 절벽이 눈앞에 펼쳐지며 머리 뒤쪽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이 이 절벽을 비춰서 마케나의 황금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절벽이 황
 금빛으로 빛나고 말로 표현이 안되어 아내를 깨워서 나와보고 같이 부둥켜 안
 고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치 때문에 그 후에는 간밤에 아내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내와 함께 펄펄 울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연같은 일들을 늘어뜨리시고 그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섶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

(나를 깨끗케 하시는 하나님)

1999년 10월초 교회에서 하는 새신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목사님이 손해 볼 것 없는 제안을 하셨다.

굉장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기로 결정하고 살다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면 땡잡은 것이고
하나님이 안계시다면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한 가지 더 단서를 달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하나님께 아주 사소한 것 까지도 물어보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물어봐도 된다고 하셔서
1개월만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뭐든 물어보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담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선 담배도 피우게 하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내용도 성경에 없는데 저는 담배를 피우면서 믿음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괜찮죠?”

Patio(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처음 하나님께 건넨 말이었습니다.

큰 아이를 가졌을 때 아내의 권유와 아기에 대한 책임(?)감으로

담배를 끊었었는데 6개월 동안 끊었던 담배는

나에게는 참는 것이었지 담배에 대한 욕구는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 이 좋은 담배를 왜 끊어!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떼를 쓰고

베란다에서 마루로 들어왔는데 마루의 TV엔

담배를 피우면 Impotence(발기부전)가 된다는 상징성을 담은

담배가 타들어가면서 점점 휘어지는 공익광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소통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듯 했습니다.

교포 신문을 보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금연초 광고 금연패치 광고 등이

페이지 마다 약간 붉은 글자가 되듯 선명해지는 것을 보았고

흉부외과 의사를 취재한 기사엔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의 폐조직 사진도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서 그런가? 담배에 대한 자극이 더 강화되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집으로 초대했다며

같이 저녁식사를 하자는

교회 집사님의 초대에 저녁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분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고집을 피우냐?”고

이야기하였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에게는 그 소리가

“담배가 해로운 것은 의사인 네가 잘 알면서 왜 고집을 피우냐”는 느낌으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소통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재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담배를 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담배가 안 된다면 제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담배 맛이 없어서 제가 담배를 보기도 싫도록 해주세요.”
그날 저녁 연수 온 의사들이 한 달에 한번 모여서 맥주를 마시는 맥주파티가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음식 한 접시씩 해들고 오고
당번 집에서는 맥주를 준비해놓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노는 날입니다.
평소 이야기 나눌 대상이 적어서 아내와 아이들도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렀지만 좀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나는 20-30명 정도 되는 의사들의 4-5테이블 중
친한 사람들의 자리에는 앉지 못하고
막 휴스틴에 연수를 와서 처음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던 중 공교롭게 두 사람이 족보상 초등학교 1년 선배였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화기에애해지면서
자신들이 가져온 팩소주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반갑다며 따라주던 소주를 세잔 마셨습니다.
(5개월 전까지 한국에서 술을 좋아하지는 않았어도 쉽게 취하지는
않았던 터라 부담없이 마셨습니다.)
세잔을 테이블에 놓는 순간 온몸이 굳어서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마비가 되었고
혀도 마비가 되어서 데데데데 거리는 이상한 소리만 낼 수 있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은 멀쩡한데 우째 이런 일이...
더 황당한 것은 아내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요리하고 준비해서 막 도착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다른 의사들이 양쪽에서 부축해서 차로 옮겨지고
차에 앉자마자 앓은 채로 토하고 말았습니다.
어려서 차멀미로 토한 기억 외에
차에서 토해본 경험이 없는 나는 몹시 수치스러웠습니다.

다음 날이 세례받는 날이었는데
밤새 한 잠도 못자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수십 번을 토해서
물만 먹어도 올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후 식도염이 생겨서 1주일간 죽만 먹고
물론 담배도 끊었습니다.
나중에 느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담배를 끊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속에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게 하시는 정결작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의료선교의 시작)

1.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

1999년 10월 10일에 침례를 받고 1년간 믿음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후
한국에서 믿음생활하는 것이 나에겐 참 힘들었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예배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힘들었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토요일에 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토요일 저녁까지 진료를 하고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를 거르지 않았는데

점점 하나님의 존재감마저 흔들려갈 무렵

2003년 5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미국서 나에게 침례를 주신 목사님이 잠시 귀국해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온 힘을 써왔는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거나 더 믿음이 없어지는 부분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레마)으로 들렸는데
“진석아 너에게 준 재능을 날 위해 한 번 써보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설교는 수요일 밤에 들었는데
주일이 되기까지 마음에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 역시 믿음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였고
저의 믿음이 지난 3년간 바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싹만 나고 곧 말라버리기 쉬운 고사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뭘 할까요? 의료봉사라도?”

의료선교 책임자인 안과의사 장로님께 성형외과가 가서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렸더니
같이 다니던 성형외과 선생님이 계셨는데
앞으로 따로 다니기로 했다면서 잘 되었다고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막상 의료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나니
제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나는 고급인력이라 의술만 제공하면 되고
교회 재정으로 나머지를 다 지원해주겠거니 생각했는데
교회 지원은 전혀 없이 약품, 기구는 물론 모든 경비를
다 제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인성형외과에 공동 원장으로 개원해있던 상태에서
10일 가까이 자리를 비우는 것도 병원에 피해가 큰데
장비나 기구 약제 등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이나 작은 수술기구는 그래도 감당이 되었는데
천만 원이 넘는 지혈기구 등은 마련하기에 부담이 너무 커서
국산으로 값싼 지혈기구를 준비하였습니다.
간호사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데려가고자 했으나
자기휴가를 쓰라는 다른 원장의 말씀으로
간호사 없이 같이 선교가는 학생과 주부 1명을 교육시켜
수술 보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즈베크를 향한 비행기는 제 마음을 들뜨게 했고
제가 그 곳에서 언청이 환자나
나를 필요로 하는 다른 많은 환자들에게 수술해주고
참 큰 보람을 느끼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크에서의 진료 첫날은
환자가 거의 없는 개점 휴업상태였습니다.
상자 두개를 고이고 널빤지 한 장을 올려서 수술대를 만들어
많이 구부리고 수술해야하기에
허리가 많이 아팠지만
환자가 없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안과나 치과 등은 미리 홍보가 잘 되어서

도착 첫날부터 환자가 대기실에 꼭 차고
번호표 받은 환자들끼리 새치기하지 말라고 웅성거릴 정도였는데
저는 환자가 없어서 찬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절 이곳에 왜 부르셨습니까?”
하며 약간씩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녁 4-5시경 한 환자가 왔는데
지금까지 본적이 없는 커다란 지방종 환자였습니다.
직경이 15cm정도 되는 지방종이 등에 있는데
수술해 본 경험도 없고
제 생각과 달리 지방종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혹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으며
지방종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지혈기구도 없고
그 큰 공간에 수술 후 피가 고일 가능성도 있었고
수술 후 압박을 할 수 있는 도구나 음압을 줄 수 있는 기구도
가져가지 않은 상태라
그 상황에서 제가 수술하기에는 벅찬 상태였습니다.
환자분께 이런 걱정들을 여과없이 설명을 하였더니
환자가 수술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내심 수술을 할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배시간에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8시 40분경에 진료소로 사용하는 빵공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바깥은 어수선했는데 성형외과환자는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5분쯤 경과하였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온 환자는

심한 화상으로 인해 턱이 목에 가서 붙은 환자로
턱을 들면 힘줄같이 딱딱해진 살(Scar cord)이 들리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 날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마음에 신이 났지만
이내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화상후반흔구축 환자라서
약간의 걱정도 있었고 욕심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예의 목 부위의 화상후반흔구축 수술환자의 아픈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전공의 chief때 비슷한 환자를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피판을 돌리는(주변피부를 당겨서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환부가 밑바닥 기도 부분과 약간 떠 있고
그곳에 피가 차면서 기도를 눌러 심한 호흡곤란증을 보였고
순간적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퀘맨 실을 다 풀고 속안에 고인 피를 빼내어
가까스로 환자의 생명을 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화상후 반흔은 신축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가 고이면
목을 누르는 압박감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2.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불안감속에 기도 후에 수술을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만큼 흉조직을 풀어주었을 때,
환자의 목은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지긴 했지만
섰을 때는 여전히 당겨지는 상태로 약간 호전된 상태이지
외관상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봐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흉을 풀어주다보니
수술은 점점 더 커져갔고,
결국 떼어낸 피부로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더 진도를 나가면 주변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안 좋은 기억으로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제 심장 박동이 느껴지면서
심장박동이 뛸 때마다 좀 더 전진하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것이 사탄의 유혹일까 성령의 인도하심일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수술은 더 큰 수술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부이식으로 부족하여 주변조직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조직의 긴장감이 있어서 부으면 목이 좀 압박될 것 같은 마음은
있었지만 비교적 만족스럽게 수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목이 들어간 부위라 살짝 눌러주어야 하는데
수술과정을 통해 환부를 눌러주는 방법(tie-over)을 시행하였으나,
압박이 충분치 않았으며 탄력반창고나 탄력붕대를 준비하지 못하여
일반 종이반창고로 붙이고 환자의 머플러로 목을 감아주고 환자를 돌려보냈
습니다.
두 명의 성형외과의사가 보통 전신마취로 2-3시간 걸리는 정도의
수술이었지만 6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수술이 끝나는 순간 이곳에 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어제 왔던 등의 큰 지방종 환자가
마음을 바꿔 수술을 하겠다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 배도 별로 고프지 않아서
점심을 먹지 않고 수술을 하고 싶은 기분이었으며,
다른 팀원들도 같은 생각이었으나
아내와 다른 분들이 한사코 점심 식사후에 수술을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늦은 점심 식사를 위해 가면서 한방 팀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테이핑을 위해 탄력반창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점심을 먹지 않고 그냥 수술을 했다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큰 지방종환자에게 수술을 하고 잘 쓸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서
한 롤을 빌려왔으며 점심을 가능하면 빨리 먹고 오후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환자를 어제 수술을 했다면 오늘 화상반흔환자에게 요령을 피웠을 수도,
또 이환자가 오늘 상담을 왔다면 다음 날로
미루거나 피하려 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
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부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지방종과 달리 15cm가 넘는 지방종은
국소마취제의 양이 많이 들어가며 피가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잘 작동되지 않는 지혈
기구로 수술을 하는 것은 수술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할 수 있고 수술 후에 혈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술은 예상했던 대로 출혈과 한판 씨름을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시간 쯤 두꺼운 등 피부를 절개하고 지혈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혈을 하려고 하면 스파크가 튀면서 지혈은 잘 안되고
주변조직에 화상만 입히는... 정말 짜증나는 지혈기구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통역을 하는 사람이 오전에 수술한 환자의 아들이 왔는데
환자가 피가 나오고 목이 아프고 물을 못 마신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수술도 한 시간 쯤 피부절개 후 종양근처도 가지도 못했는데
웬 청천벽력인지...

환자의 기도폐쇄가 걱정이 되면서 통역에게 환자를 급히 모시고 오라고
말을 하였는데

통역이 나갔을 때는 이미 아들이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으며
집주소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내 잘못으로 환자에게 일이 생기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전체 선교사업에 큰 악영향을 주고 하나님께 큰 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내가 여기서 의료사고로 한국에도 못 돌아가겠구나 하는 등등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 저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상황을 해결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범벅이 되었고

그 자리에 함께 하던 성형외과 팀들도 모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환자 몸에 붙어 있던 접지(Earth)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지혈기구는 접지가 떨어지면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서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데
접지가 떨어지는 순간 이 지혈기구는 평소에 있던 스파크도 사라지면서
훨씬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혈기구가 작동함과 거의 동시에
지방종의 위쪽 끝부분이 갈라지면서
생선 배 가르면 알이 나오듯이 울룩볼룩 거리면서 기어 나왔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지방종과 주변조직이 쉽게 박리가 되어가기 시작했으며,
지방종을 찾아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에
직경 15cm정도의 지방종을 쉽게 제거하였습니다.

지방종을 거의 제거할 무렵 밖에 화상환자가 왔습니다.
수술 중이지만 혹시라도 상황이 위급할까봐
환자를 수술실로 들여보내라고 했는데,
들어오는 환자의 목상태는 아주 멸절된 상태로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피부를 떼어낸 사타구니에 붙인 거즈가 피로 젖어서
병원에 다시 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는 순간 절로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왜 기도 뒤에 두셨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절실한 기도예 귀기울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몇 년간 이 찬송의 이 대목은 당시 상황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며
눈물짓도록 하였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내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속에서 불안하여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가슴성형전문가로 세우시는 하나님 1

(성형외과 학술대회에서 생긴 일)

2003년 우즈베크 의료선교를 다녀온 후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의료선교를 갔던 분과 사랑방모임
(여러 가족이 함께 삶의 희노애락을 나누는 모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슴성형을 전문적으로 시작한 지 10년째라
성형외과의사들 사이에서 가슴성형을 열심히 하려는
젊은 성형외과의사로 인지되고 있을 무렵
저에게 학회에서 패널 의뢰가 왔습니다.
당시에 가슴성형을 열심히 하고 있던
다른 3명의 한국 성형외과선생님과 함께 강의와 토론을 준비하도록 되었습
니다.
저는 “성공적인 가슴성형을 위한 올바른 보형물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회에는 미국의 유명한 가슴성형 대가가 초청되었고

제가 포함된 패널 바로 전에 한 시간 동안 그 대가분의 강의가 계획되었습니다.

학회 2주전 갑자기 학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학회일정 인쇄물이 다 나온 상태인데

미국서 오는 초청연자가 제가 포함된 패널에 함께 참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연자가 늘었으므로 시간을 좀 줄이라는 연락이었는데

저에게는 천재지변과 같은 한마디가 더 있었습니다.

이 초청연자가 저와 같은 제목

“성공적인 가슴성형을 위한 올바른 보형물의 선택”으로

저의 패널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우째 이런 일이...

패널 앞두고 다른 패널리스트가 추가되는 것도 이례적이고

더구나 사전 조율 없이 같은 제목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도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일.

저는 이 대가와 비교당하겠다는 생각에 많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해주신 사랑방 리더님은

명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골리앗입니다! 다윗을 세우기 위해 골리앗을 준비하셨듯이

박진석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일주일 간 사랑방 구성원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셨고

저도 매일 새벽기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패널 앞서 열린 미국 대가의 초청강연에서

이 분은 자신이 고안한 백의 우수성을 제안하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백은 당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미용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이었는데 계속 이 백의 우수성만 역설을 하다가
많은 우리나라 성형외과의사선생님들로부터
비난에 가까운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시작된 패널에서도
앞 강연에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강의 자료를 반복해서 사용하며
같은 이야기를 또 하다가 야유마저 듣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된 저의 강의는 같은 제목이었기에 더 비교되며
칭찬에 비교적 인색한 많은 분들로부터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강의였다는 호평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강연을 듣던 대만미용성형외과 학회 관계자에 의해
이 강의 내용으로 대만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온 가족이 함께 초청 받아서 대만 관광도 안내받고
많은 대만의 성형외과 의사들 앞에서
(그 중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가도 있었음)
강의를 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저에게
기쁨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제 강의를 들어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었고
제일 뒷자리에서 저에게 팔로 하트를 그려주던 아내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한일학회와 여러 아시아 가슴성형학회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작은 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가슴성형전문가로 세우시는 하나님 2

(1회 아산심포지엄 생방송 시연에서 생긴 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가슴성형에 대한 1회 심포지엄을

2004년 6월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초청연자로는 일본의 나구모 박사와

국내 가슴성형을 잘 하거나 많이 한다고 알려진 의사들을
연자로 채택하였습니다.

강연과 함께 생중계 시연으로

강연자의 시술내용에서 모든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 참가비에 비해서 좀 비싼 참가비였음에도

400여석(?)의 자리가 완전 매진된 성공적인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중국과 대만에서도 참관을 위해 많은 의사들이 입국하였습니다.

2004년 봄에 당시 배꼽을 통한 가슴성형을 다른 병원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저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시술하고 있었으므로
저도 생중계 시연자로 채택되었습니다.

학회 2주정도 전에 저에게 수술받기로 정해진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환자의 가슴 상태를 보는 순간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꼽으로 시술을 할 수는 있지만

배꼽보다는 다른 절개법으로 권하고 싶은 몸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컨디션이 배꼽으로 시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아산병원에 이야기하면(사람들이 배꼽으로 많이 하지 않던 터라)

시술 지원 환자가 없을 수 있고

이 환자도 특별비용으로 시술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 드렸더니

환자분은 그냥 배꼽으로 수술을 하시겠다며

제가 꼭 수술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환자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었지만

수술하는 날까지 나도 기도 할테니 같이 기도를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저를 기도로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매일 새벽기도를 하였습니다.

배꼽으로 시술이 가능한 하지만

환자에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절개는 겨드랑이나 밑주름선인데...

나에게 아산병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배꼽시술인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중계 시연은 오전 오후 나뉘서 각각 세 군데에서

동시에 수술이 열리면서

이 과정을 참석자들이 모여 있는 강당으로 생중계를 하고

수술도중에 관객석에서 질문이 있는 경우

직접 또는 중계인을 통해 질문을 하고 시술자는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시술자도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좀 더 정확하게(책잡히지 않게)시술하려고 노력하기에
평소 수술시간에 비해 배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일 아침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산병원으로 갔습니다.
오후 수술이었지만 디자인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같이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었지만
기도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므로
저도 울고 환자분도 울고...
기도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에
아무 걱정이 필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후 수술이었지만
수술실 분위기도 익힐 겸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1회 가슴성형 생중계 시연이라 그런지 많이 분주하고 어수선하여
주최 측 사람들은 반 낮이 나간 듯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쪽에서 갑자기 시끌시끌 왁자지껄...

생중계 시작 10분 전 겨드랑이 내시경 시연을 위해
수술대에 올라간 21세 환자가
갑자기 겨드랑이로 하기 무섭다며 수술 못하겠다고 울고불고...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나는 주최 측...
정말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갑자기 주최측 요원 한 분이 제 환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환자에게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환자를 내리자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다급하고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옆에 있는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환자를 내리는 것은 참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비해 시술할 환자를 좀 더 여유 있게 대기 시켰어야 했을텐데...
제 환자는 영문도 잘 모르는 채
내려와서 수술대에 눕고 겨드랑이 내시경으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 요원의 황당한 이야기는
환자의 마음이 변한 이유가
전날 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보던 중
배꼽으로 시술하는 것이 덜 아프다는 이야기에 흔들렸으며
오늘 무서워서 수술하지 않겠다며 회복실로 나간 환자를
저에게 설득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당혹스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 역시 제가 수술할 환자가 없어진 마당이라
회복실에서 울고 있는 환자에게 다가가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배꼽으로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오늘 배꼽으로 시술하기로 되어 있는데
환자분이 수술을 거부하여서 제 환자가 대신 수술을 들어가버려
제가 수술을 못하게 되었다는 상황을 설명하자
환자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가
배꼽으로 수술하겠다는 결심을 얻어냈습니다.
회복실에서 디자인을 다시 하기 위해
커튼을 치고 환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만일 100명의 환자를 세워놓고
누가 배꼽으로 하기에 적합한 환자인지 한 명을 고르라면
제가 선택하였을 그런 체형의 환자였습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염소를 준비해주신
여호와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중계 시연은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지켜본 관중들이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시술이 끝난 후 제 환자가 가장 편안해 한다는 이야기
1년 뒤 경과를 보는 과정에서
제 환자의 경과가 가장 돋보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의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박진석의 사랑이야기)

몇 년 전 어느 날 밤에 아내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데 막연한 그리움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이 답답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제가 그리워하던 대상은
어린 시절 제가 미쳐서(?) 쫓아다니던 제 아내의 소녀모습이었습니다.
사춘기 제가 앓았던 열병이, 그 뜨거움이 얼마나 강했던지
지금도 그 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저미어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이루어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도
그 추억이 오늘날 저의 힘의 원동력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중2, 아내는 초등5년.
아내는 초등시절부터 학교에서 이름을 날리던 팔방미인 모범 우등생

저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 같은 반 아이들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아주 평범하고 내성적이며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집안끼리 우연히 알고 지내게 되어
아는 동생 아는 오빠정도였는데
주변에서 제 아내에 대한 많은 칭찬을 듣게 되어
제가 호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2년 뒤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발전하여
제가 고1 겨울방학, 아내가 중1 겨울방학.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나와 결혼 해주겠냐던 나의 제안에
제 아내는 자기가 어른이 되면 나와 결혼하겠다는 승낙을 하였습니다.
덧붙인 아내의 한마디
자기 아빠는 서울법대 나온 검사인데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신랑감이 되어서
아빠가 흔쾌히 승낙 해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빠가 반대를 한다해도 자기는 나와 결혼하겠지만...

방학 내내 매일 아침에 만나서 저녁이 되도록
추운 줄, 다리 아픈 줄 모르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내는 다리가 아팠다 함)
손잡고 10km가 넘게 걸었는데

다음 날 아침까지 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해 눈물지을 정도로
저는 제 아내를 몹시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던 날 중의 하룻밤에 제가 하나님과 Deal(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잊고 지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도 한참이 지나도록 까맣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전교 3-4등 하던 아내에게
반에서 중간정도의 성적인 제가 어울리는 짝이 되려면
시간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장인어른이 반대하여 아내가 쫓겨나는 상상을 하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에게 어울리는 신랑감이 될 수 있도록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살게요.”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왜 이제야 나는지...

그 이후 2년간 하루에 3-4시간 만 자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년간 아내를 만나는 것도 1년에 3-4회(?)
고3 1학기 시험기간이 끝나는 날
무작정 아내가 다니던 학교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Beeper도 없던 시기라
무작정 기다리다보니 11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하고 뒤돌아서면서도
아내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대에 들어왔고
별 반대 없이 저희는 결혼하였고
23년을 아내와 살면서 참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장인어른도 아들처럼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행복의 한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하나님 믿는 생활을 하기 전에

아내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교회를 갔다 온 것 같고

절대로 교회가지 말고 늙어죽기 전 나와 같이 성당에나 가자며

아내에게 뭐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시겠는지 저를 미국까지 보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네요.

저는 잊어도

저는 손을 놓아도

저를 잊지 않으시고

제 손을 놓지도 않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제 아내를 제 앞에 보내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박진석성형외과를 만드시는 하나님 1

(직원 문신 이야기)

2006년 4월에 12년간 동업했던 세인성형외과에서 나와
박진석성형외과를 개원하였습니다.

많은 어수선했던 가운데 조금씩 자리잡아 가던 2006년 11월 1일.

제가 다니는 오륜교회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세이레 기도회를 엽니다.

저는 개원 첫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21일을 한번 개근해봐야겠다고 다짐하고
첫날 기도회에서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끝나기 직전에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기도문이 튀어나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
며...)에 영향을 받았는지

“성령님의 양날 선 검으로 저의 가슴을 쪼개고 심장을 찔러서

저의 더러운 속을 드러나게 하사 회개케 하시옵고... “

기도를 하는 중에도 속마음에

‘진석!!! 너 뭐라고 하는지 알고 기도하냐?’

‘뭘 일을 당하려고 이런 기도를 겁 없이 하고 있냐?’

다음 날 오전에는 스케줄이 없어서

아내와 함께 야외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눈썹 문신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해야 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세인성형외과에 있을 때는 제가 했는데

나올 때 기계를 두고 와서 지금은 제가 하지 않고 있으며

많이하는 성형외과를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 끊고 10분정도 지났을까?

눈여겨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우리 병원에 몇 명이 눈썹 문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은 간호사는

“우리병원에 최근에 문신한 사람들이 있던데 누구지?”

하는 질문에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면서

“실~장님 하고 누구 누구 세 명인데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별 느낌 없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서 했어?”

“~~~”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했냐고?” 다시 물었더니

“저~희 병원에서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내 병원에서 무허가 시술자를 불러다가
병원에 있는 마취제를 써가며 우리 간호사들이...
하나님을 원장으로 내가 부원장으로 투명하게 공의롭게 운영한다고
다짐했는데...
이 곳에서 불법이...
그것도 무허가 시술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리터치하기 위해 그 사람을 다시 불렀는데
제가 퇴근예상시간보다 늦게 퇴근해서
대기실 안쪽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으며
제가 퇴근길에 그 쪽을 기웃거리어서
제가 물어볼 때 알고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대네요.

지난 밤에 기도내용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날(금요일) 출근하자마자
실장을 불러서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병원이니
내 맘대로 해고할 수는 없고
지금부터 1개월간 출근하지 말고 기도해보시게.
나도 1개월 동안 기도를 할 것이고
1개월 안에 실장을 해고시키지 말라는 기도응답을 받으면 연락할 것이고
기도응답이 없으면 1개월 뒤에 정식으로 해고하겠다.
만일 그 사이라도 다른 직장을 구해서 가겠다면
원하는 대로 하시라.”

2일 뒤 주일 날 당시 저는 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설교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중에 이담에 어른이 되면 CEO가 될 사람도 있는데
혹시라도 직원 중에 잘못했다고 막 자르지 말고 용서해주시라.”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께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설교 중에 이 내용이 준비되었던 내용인지 아닌지...

목사님은 준비되었던 말씀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실장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주셨다 하고 월요일부터 출근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박진석성형외과를 감찰하시고 죄짓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0편 1-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박진석성형외과를 만드시는 하나님 2

(목디스크 수술이야기)

성형외과의사들의 직업병 중 하나가 목디스크입니다.
저역시 2000년 정도부터 1년이면 1-2개월은 심각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2007년1월 정도부터 심한 어깨통증과 목통증이 좋아지질 않고 있었습니다.
2월이 되면서는 손끝까지 저리고 다리에 힘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디스크가 나와서 척수가 많이 눌리고 있었습니다.
3월에 수술을 해야 하나 아는 의사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의사는 수술을 왜하냐고 하고
다른 의사는 수술을 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앉으면 일어서기 힘들고 일어서면 앉기 힘들고
손을 쥐면 잘 펴지지 않고
손을 펴면 잘 쥐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이런 사실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상기시켰는데

막상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며 그 결과 하나님과도 단절되는 것이 두려우셨음)

죽음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인데...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실까

Mind control로 자기 최면을 거시면

담대히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으셨을텐데...

그러던 중 머릿속으로 주입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어려운 순간을 겪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지금까지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도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묵상은 제 생각을 바꾸어서

수렁에 빠진 저를 건지실 때
수렁 밖에서 손을 내밀어 내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수렁으로 들어와서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셋세마네에서 떨고 있는 예수님은
“나도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을 두려워했단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므로
목디스크로 인해 두려워하는 네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꾸나” 하시는 것입니다.

가슴이 짜~안 해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 모든 괴로움을 몸소 경험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현재와 앞으로의 어떤 괴로움도
참을 용기도 생겼습니다.
제 목상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나?
하나님은 저에게 선물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내 아들이 “아빠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성부하나님의 입장에서 차라리 온 인류를 벌하는 편이 건디기 쉽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아무런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신다면
이 목상은 제 목숨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2007년 3월 23일(금요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어기적거리며 병원에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수술을 해야지 하고 출근을 했는데
 제 목상태로 인해서 연기시킨 환자가 누적되어
 금요일에만 여섯 명.
 이 상태로 수술을 한다는 것은
 환자를 위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모든 예약환자를 취소시키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신경외과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상태를 진단한 결과 뒤에서 조금만 부딪혀도 전신마비가 올 수 있고
 현재도 위태위태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라도 수술을 하자는 말에 위험성에 대해 물었더니 너무 심각한 상태라
 뭐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중국에 있는 큰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큰아들이
 제가 잘못되면 큰아들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하는 걱정
 큰아들을 만나고 와서 월요일(3일 후)수술을 하겠다고 하고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열시쯤 되었을까?

신경외과의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생 지금 어디세요? 아직 병원에
 있으세요?”

“검사 중입니다.”

“박선생 지금 보내면 지금 모습으로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응
 급으로 수술을 올릴테니 어디 갈 생각



말아요.”

너무 단호한 말썸에 그러겠노라 대답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응급으로 수술한다고 연락을 하자

아내는 교회에 들러서 담임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만나지 못하였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작은 메모지에 적어서

목사님 와이퍼에 꽂아 놓았답니다.

다행히 목사님이 보셔서 연락이 되었고 전화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금요기도회에서 1000명의 성도들이

목사님 인도하에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큰아들에 대한 문제는 제 아내가 지혜를 발휘하여

큰아들을 귀국시키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내려가려 하는데

옆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

아직 믿음이 없으신 어머니가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께 울지 마시고 절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 하셔서 저를 따라하시라고 하고

제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어머니는 따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아무 후유증 없이 잘 치유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머니는 그 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요즘 저보다도 열심이십니다.

저는 수술실에 내려가면서 또 수술실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상했던 그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시고 감싸주셔서
제가 죽거나 사지마비가 된다고 할지라도
저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판단할 필요없는 하나님의 의
그런 하나님이 엄청난 기운이
나를 포함한 수술실 전체를 가득 채움으로 느끼는 기쁨
제 생애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목디스크 수술이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너무도 충만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터라
아~ 하늘나라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하늘나라구나.

가슴성형을 위해 전신마취를 앞두게 되면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므로
의사(저)를 의지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럴 때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보시면
제가 경험한 하늘나라를 경험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선교현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카라칼파크공화국)

1. 부르심

2003년도에 처음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그 후 매년 의료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였는데
돌아와서 일할 때는 그만큼 집중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평소에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9년 3월말 쯤 저에게 의료선교를 가르쳐준 안과의사께서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즈베키스탄 안에 카라칼파크공화국(아랄해)이라는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한 번 가보았더니 언청이 환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시자고 하셔서
“의료선교는 이제 안다니려고 합니다.

더구나 옛날에는 언청이 수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제가 한다면 더 좋은 수술을 할 기회를 빼앗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더니 기도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벽기도를 할 때마다 선교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는데
은사님 중에 언청이 수술에 세계적인 대가이신
엄기일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엄기일 선생님께 말씀드리려봐서 가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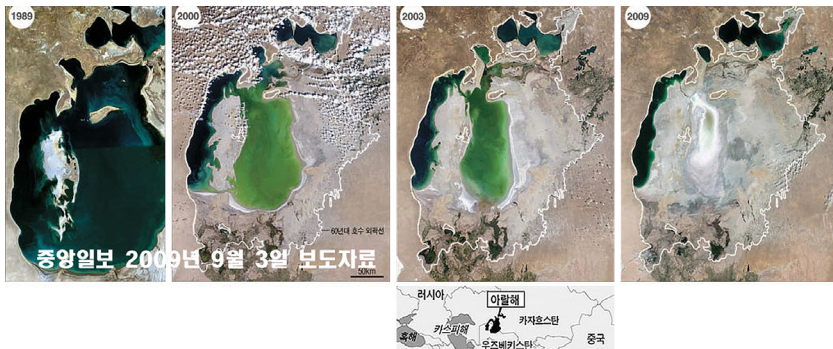
엄기일 선생님은 제가 하나님 믿고나서 재미없어졌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엄기일 선생님께 여쭙봤더니 생각해보자고 하셨습니다.

2개월쯤 기도하고 있을 무렵 쓰다 중단한 교과서의 자료를 찾기 위해
진료실 책꽂이를 뒤적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에 샀던 언청이 수술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참고로 가슴성형만을 전문으로 수술하고 있는
나의 책꽂이에 다른 수술도 아닌 언청이 책이 꼽혀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레지던트(전공의)과정 입문할 때 선배들이 사라고 준 목록에서
세트로 산 이후 20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책이어서
더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은 아내가 집정리를 하면서 아주 구석진 곳에 있던
집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는 저에게 보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준
상자더미에 넣어두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있지 않았다면 집에서도 진작 버려졌을 책인데...)

저는 아내가 준 상자더미를 병원에 갖다 놓았고
 진료실 구석에 몇 개월간 쌓여있던 책을
 병원 간호사가 정리하는 과정에 책꽂이에 꽂혀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주일 후에 엄기일 교수님으로부터도
 같이 가시시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009년 9월 1일부터 10월2일 출국 전까지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도록 하였는데
 저는 9월 1일, 2일, 3일을 신청했습니다.
 9월 3일 마지막 금식기도를 하는 날 아침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중앙일보 1면 top에 아랄 해가 마르고있다는 사진이 나온 큼지막하게 나온
 것입니다.
 제가 가기로 되어 있는 그 곳이 제가 마지막 금식 기도하는 날에
 중앙일보 국제면이나 사회면도 아니고
 1면 톱기사로 쓰이려면 전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없어야 했기에
 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형외과의사가 환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이야기

2. 누크스(카라칼팍수도)에 충만하신 하나님

카라칼팍에서 많은 언청이 환자를 엄기일 교수님이 치료해주시고
저도 엄기일 교수님의 가르침 하에 두명의 아기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어른들을 수술할 때와 사뭇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화상으로 인해 손이 오그라든 환자가 왔습니다.
왼 손이 오그라들고 손가락도 오그라들어 안 펴지고
손가락사이가 손바닥부터 첫마디까지 붙었으며
오른 손은 잘 펴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은데
손가락 사이가 손바닥부터 첫마디까지 붙은 환자였습니다.

환자의 심한 왼손만 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하기 시작한 것은 3시반 정도였습니다.
수술 전 평가로는 흉조직을 제거하고 피부이식을 하면
잘 펴지리라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 수술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제가
엉터리 진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될수록 인대손상도 있다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손의 인대연장술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여서
인대를 이식하거나 연장하는 시술이 필요했다면 시작을 하지 않았을텐데...
불완전한 회복이 예상되면서 공들여 시술한
4시간의 노력이 후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머리끝부터 저를 지탱하는 어떤 기운이
허리와 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피로감과 눈이 잘 안보이는 증상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현지 마취의사에게 곧 끝난다고 말하고 수술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바늘 한바늘 꿰매는 순간이 너무 힘들고 느려지기까지 하여
점점 더 지치게 하고 있을 무렵
막내간호사의 “원장님 벌써 7시 반이에요”하는 말이
힘들어하는 나에게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비아냥거리듯
“그래서 한쪽 더 하자고?”
하며 통명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에 있던 다른 간호사 3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네 원장님! 반대쪽도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안 해주면 이 사람이 언제 치료받겠어요?!”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듯 귓가에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중 한 간호사는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기에 왜 우냐고 물으니
“그분이 오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간호사의 입에서

그분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의 부족함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반대쪽도 수술하라고 간호사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발끝으로 나갔던 어떤 기운이

다시 순식간에 머리카락 끝까지 솟구치며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수술을 끝내고 또 다른 수술이 있어도

피로감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수술실에 가득 채우시며

우리 모두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반대쪽 손가락 사이를 펴기 위해 디자인을 하고

얼마의 피부가 필요할 지는 몰랐지만

남은 피부로는 어렵었다고 생각하며

반대쪽 손을 시작했는데

새로 피부를 뗄 필요 없이

자로 잰 듯이 맞아떨어지는 과정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찾아오는 마음은

비록 제가 왼손을 완전하게 펴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순종할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할렐루야!!!
여러분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안에 거하고 내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이야기 맺음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늘 제 삶 속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야기의 맺음말을 쓰는 것은 어폐가 있겠지만
탈고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열심히 써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구나.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구요.
제가 경험한 기적의 집대성이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믿음생활을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나의 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랬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를 만나주시고 동행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제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생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므로
당연 제가 하나님을 줄줄 쫓아 다녀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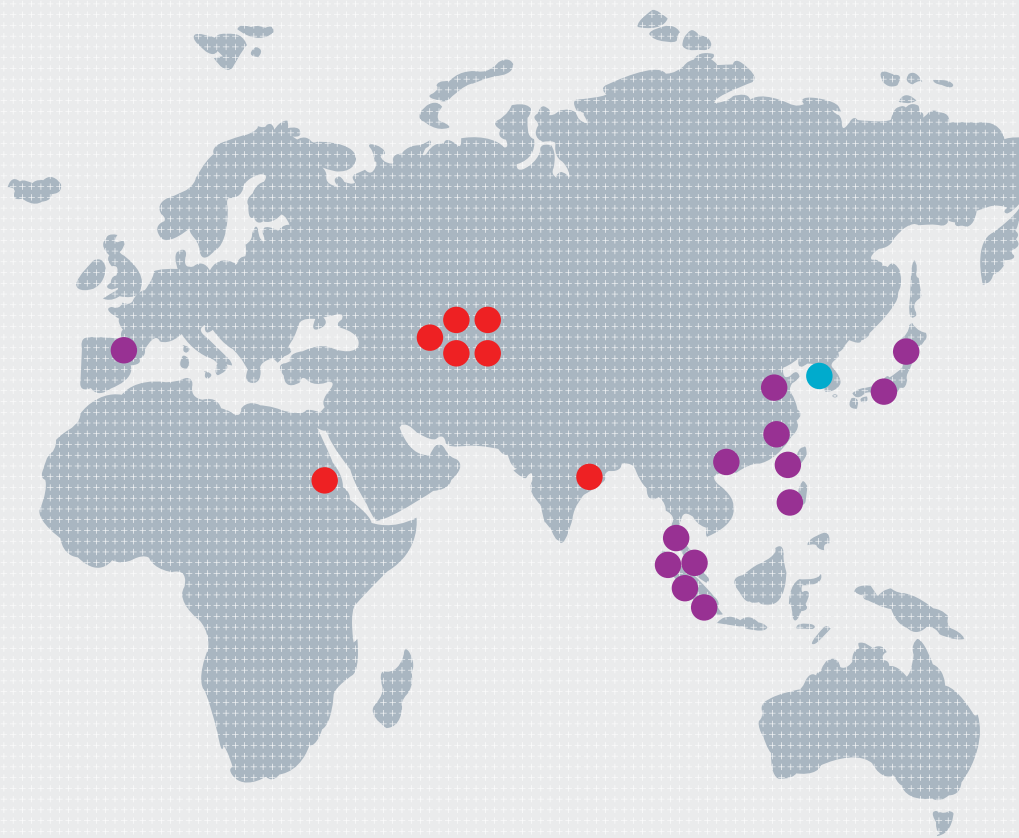
처음엔 언제 쓰지? 괜히 써올린다고 했나? 하기도 했지만
어떤 대목에선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어떤 대목에선 눈물 흘리며 써내려가는 작업은
전혀 힘들지도 지겹지도 않고 행복했습니다.

제 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자신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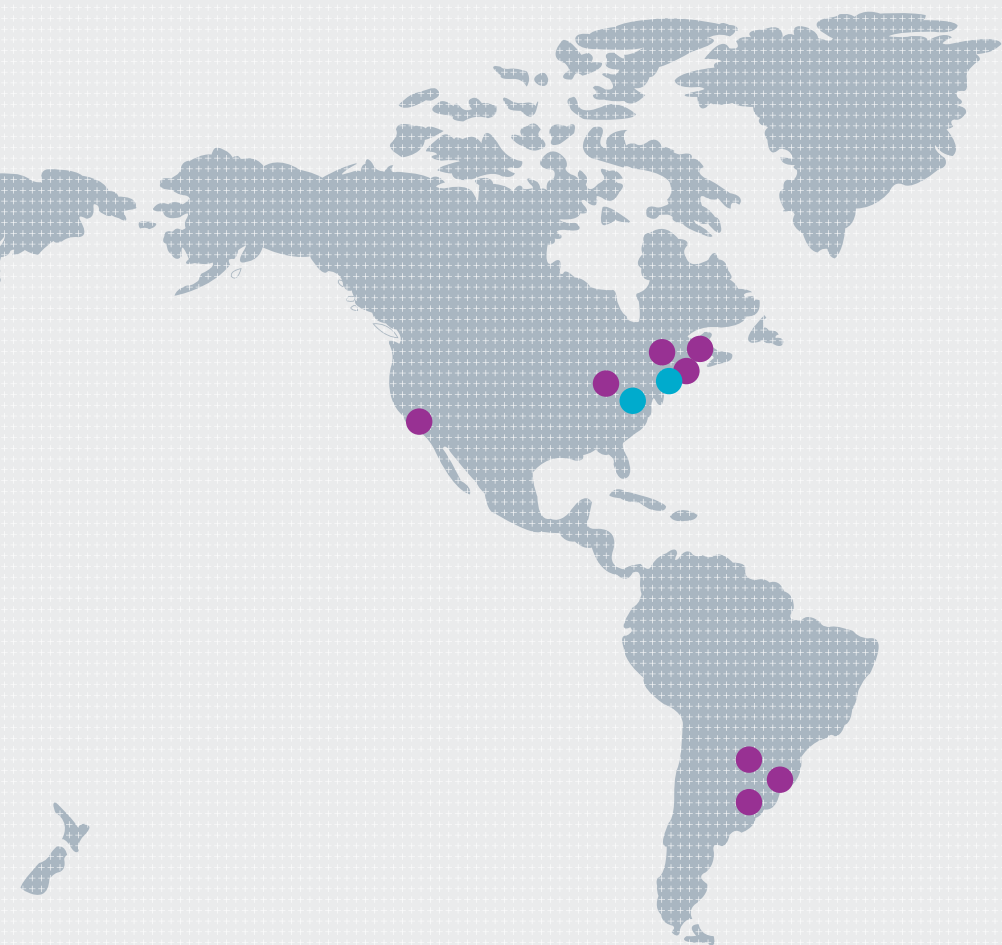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니라.



- 의료선교지 : 타쉬켄트, 부하라, 누쿠스(2), 캘커타,알마티, 타라즈(2), 카이로, 고센카이로, 고센
- 3개월이상 체류 강연 및 연구 : 서울, 달라스, 휴스턴
- 학술강연 및 연구 : 샌프란시스코, 버밍햄, 뉴올리언스, 올랜도, 더램, 윈스턴셀럼, 뉴욕, 그린스보로, 상파울로, 산토스, 히에브랑쁘레데, 바르셀로나, 쿠알라룸푸르, 방콕, 푸켓, 세브, 싱가포르, 호치민, 홍콩, 타이베이, 상하이, 베이징, 동경, 삿포르



Dr. Parks Plastic Aesthetic Clinic
www.parkjs.co.kr | breastpark@naver.com | 02-514-0500

가슴성형전문병원

박진석성형외과



breastpark



breastpark@naver.com

Dr. Parks Plastic Aesthetic Clinic
www.parkjs.co.kr | [breastpark](https://www.naver.com/breastpark)  naver.com | 02-514-0500